

# 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일제강점기 수탈과 전쟁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화되어 제대로 된 산림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등산에서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충북은 전체면적의 66%가 산림입니다. 산림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올해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감시 인력배치와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단속은 물론 진화헬기 3대를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농업부산물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라이타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나 입산통제구역, 폐쇄등산로에 출입하는 자, 산불 발견시 119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7

충청북도지사 이시종